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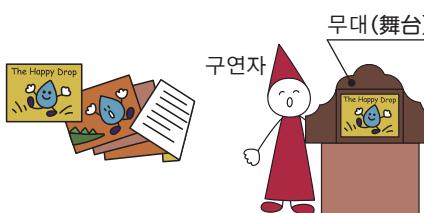
第三章 延續文化



가미시바이는

- 화면이 한 장 한 장 따로 있어요
 - 화면 뒷면에는 글이 있지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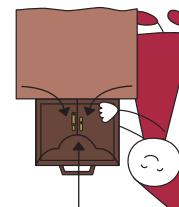
겉 화면의 이야기는 마지막
화면 뒷면에 쓰여 있어요



- 그러니까 무대에 작품을 끄워 넣고, 빼고, 꽂으며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지요
 - 구연자(낭독자)가 있어요

한국어로 된 책 제작과 출판에 대한 글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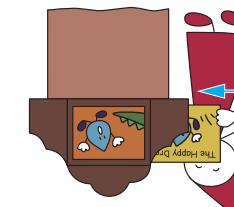
정한계 鄭寒溪



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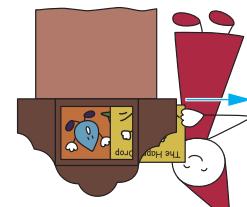
한국어로 된 글입니다.

ପାଠ୍ୟ ପାତା



10

תְּמִימָנָה וְעַמְּדָה
בְּמִזְמָרָה וְעַמְּדָה
תְּמִימָנָה וְעַמְּדָה



ੴ ਸਾਹਮਣਾ

시작해요



- 무대 옆에 섭니다
모두와 마주보는 거지요
뒤쪽으로 서지 않도록 해요
 - 문을 엽니다
1에서 2,3
3,2 어느 쪽이든

자~ 이제 시작할게요 ..



- 작가명(각본)을 읽습니다
 - 제목을 읽습니다

- 무대 옆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요
- 성대모사는 하지 않아요
- 퍼포먼스도 하지 않아요

→구연자가 두드러져,
작품 세계가 어디론가
가 버리고 말지요



- 말을 바꾸거나
내용을 바꾸지 않도록 해요
→ 작품이 훼손되니까요